

광주 고열 학생 20% 넘으면 휴업

시·도교육청 신종플루 대응 방안...전남은 위험도 20점 이상때 휴교

학생 예방접종 내달 11일로 앞당겨

광주 시내 유치원·초·중·고교는 학급 학생수의 20% 이상 고열(37.8℃)자 발생시 학급별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내 학교는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등을 합산한 위험도 점수가 20점을 넘기면 휴업한다.

이같은 기준이 마련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휴업 방침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새로 정해진 지침마저도 뚜렷한 세부 시행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30일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학생환자 급증에 따

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날 교과부가 학교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휴업 기준 가이드 라인'을 내려 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2개 안을 마련,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시달렸다. 1안은 24학급 이상 유치원·초교, 18학급 이상 중·고·특수학교가 적용대상으로 ▲학급 학생수의 20% 이상 고열자 발생시 학급별 휴업 ▲2개 학급 이상 휴업시 학년 전체 휴업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4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2안은 ▲학급 학생수의 20% 이상 고열자 발생시 학급별 휴업 ▲고열자가 해당 학년 학생수의 20% 이상 학년별 휴업 ▲고열자가 전체 학생수의 20% 이상 발생하면 전체 학년 휴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급, 학교 규모, 위치,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해 1~5점 까지 점수를 매겨 휴업 여부를 31일부터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질병 요인(감염률·확산 속도)만을 고려해 확산 속도가 높고(감염률 15% 이상) 빠를 경우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환경요인과 질병 요인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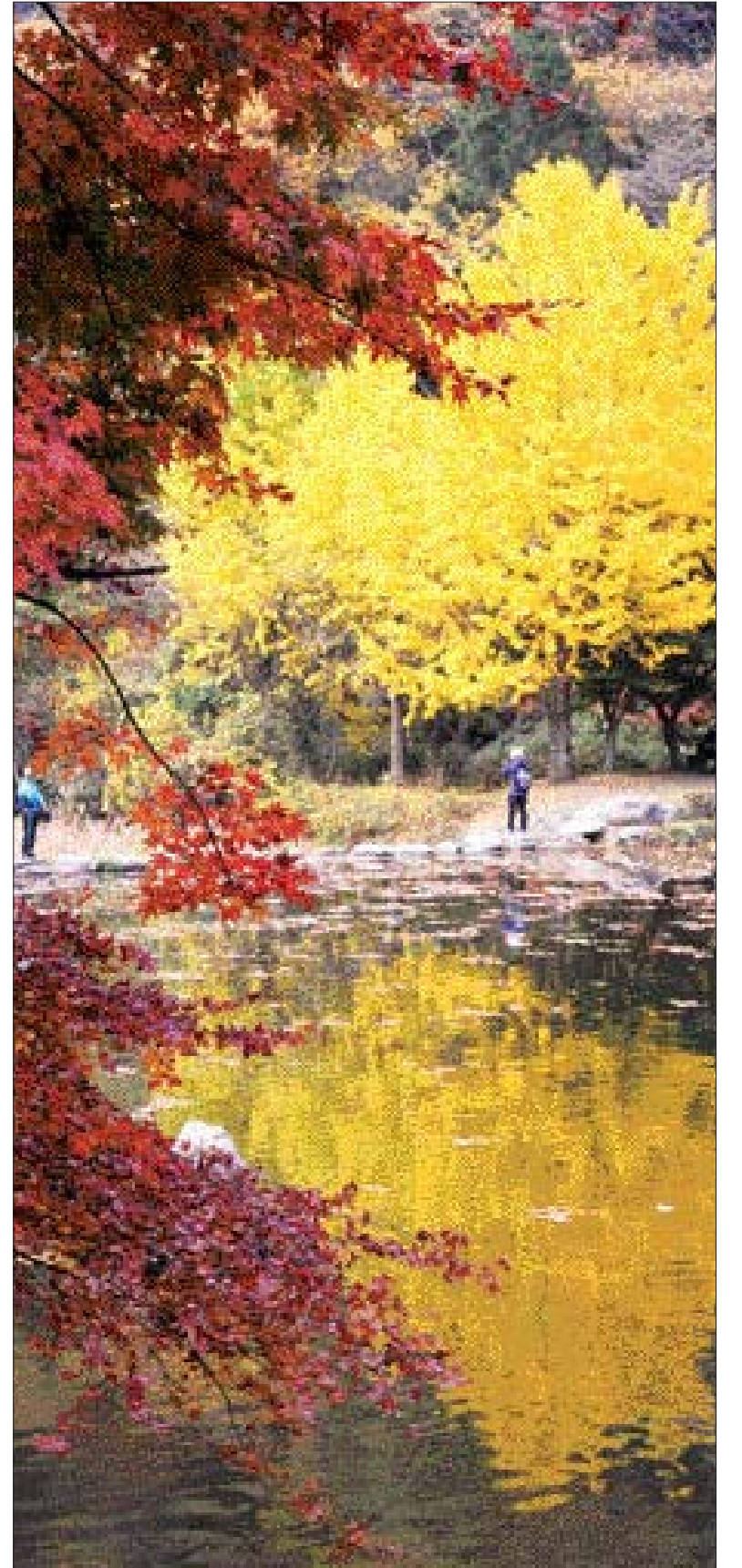
두 고려한 위험도 합산점수가 15점 이상일 경우 학교장이 전체 휴업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20점을 넘으면 휴업을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사실상 인플루엔자 대책을 학교에 일임,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휴업 자체를 권장하다가, 세세한 기준 없이 학교장에게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산술적인 휴업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언제부터 휴업을 하라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환자가 안치됐을 때 언제 휴업을 풀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의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시기도 다음달 11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신종플루 백신의 국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5~7일 단축키로 한 때문이다.

이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는 학교 학교, 지역보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시·도는 접종 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 희망자에 한해 각 학교에 보건소 단체접종팀이 방문해 실시하며, 사전 예진과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 안전 점수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시내 휴업 학교는 14곳이며, 전남도는 7개 학교다. /윤영기자 perfoot@



단풍 절정 늦가을로 접어들 30일 장성군 백양사 계곡에서 곱게 물든 단풍이 수면을 수채화처럼 물들이고 있는 가운데 등산객들이 단풍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충장로 상가 10곳중 3곳 비었다

금남로 오피스빌딩은 25% 공실...임대료도 크게 떨어져

광주지역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늘고, 투자수익률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상권인 금남로의 오피스 빌딩은 25%, 충장로 상가는 30%의 공실률을 보였다. 임대료도 떨어졌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에 소재한 오피스빌딩 30동과 매장용 빌딩 46동의 3분기 공실률·투자수익률·임대료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평균 14.5%로 지난 2분기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 매장용 빌딩도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오른 17.5%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특히 금남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석 달 전보다 4.5%포인트 급등한 25.7%에 달해 4곳 가운데 1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용 빌딩도 충장로 상가는 0.7%포인트 오른 29.9%에 달했고, 상무(8.5%)·일곡(16.7%)도 2~5%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오피스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0.08%포인트 오른 0.42%에 그쳤고, 매장용 빌딩은 0.

02%포인트 감소한 0.79%로 1%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임대료는 매장용 빌딩이 전분기보다 m당 1천200원 내린 2만800원이었고, 오피스 빌딩은 5천1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금남로·충장로 등 광주 대표 상권의 공실률 하락 추세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무·일곡 지구 등 외곽으로 그 세를 확산해 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아프간 추가파병

정부, 재건팀도 130~150명 확대

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 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수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PRT는 현재 바그람 미

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 등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영뉴스

2009 Green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http://bike.ijmedia.co.kr

주요 행사

- 1. 11월 1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2.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3.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4.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5.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6.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7.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8.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9.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 10. 11월 14일(토) 광주·전남 자전거 대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0월 26일(수) ~ 11월 10일(수)

2. 신청처: http://bike.ijmedia.co.kr

3. 참가비: 1인 1만원 (가족 2인 이상 15만원)

4. 참가대상: 18세 이상 일반인

5. 참가종류: 일반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6. 참가지역: 광주, 전남

7. 참가코스: 광주, 전남

8. 참가시간: 11월 14일(토) 09:00 ~ 17:00

9. 참가장소: 광주, 전남

10. 참가문의: 062-222-8111